

# 정읍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 가동

### 3개 반 12명 대응 전담팀 운영 양심 양산대여소·그늘막 설치 폭염 상황 비상 연락체계 구축

정읍시가 올여름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읍시는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설정, 그늘막 설치와 무더위쉼터 운영, 양심 양산대여소 운영 등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도시안전국장 총괄 아래 상황관리반과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등 3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폭염 대책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폭염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종합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또 보행자가 많은 사거리 등에 스마트 그늘막 5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44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주민센터와 경로당, 금융기관 등 냉방시설이 구축된 실내 무더위쉼터 345개소를 지정·운영한다. 폭염 특보 시에는 시내 주요 버스승강장과 야외



정읍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살수차를 동원, 도로의 열을 식히고 있다. <정읍시 제공>

무더위쉼터에 얼음과 얼음물을 비치하고 휴대용 선풍기나 쿨패치, 쿨도시, 텀블러 등 폭염대응 물품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폭염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재난재해 문자와 재해예경보시스템, 전광판 활용 등을 통해 폭염 위험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한낮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개인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모든 시민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40명 내달 배치

### 연간 300명까지 사업 확대

정읍시가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촌의 인구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의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0여 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인 계절 근로(E-8) 체류 자격으로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 필리핀 루피사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

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간 사업이 중단, 올 상반기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MOU 세부안 합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40여 명을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시는 상반기 고용신청을 한 지역 내 농가에 8월 중으로 1차 배정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 일환으로 연간 3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확대되면 저 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계절성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남원시 금지면 국도 17호선 배롱나무 꽃 장관

남원시 금지면 국도 17호선(김주열 묘 앞 ~ 곡성경계)을 따라 분홍빛 배롱나무의 꽃이 활짝 피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사진>

금지면 배롱나무 길은 지난 2009년 면민들의 헌수목과 헌수금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금지면 옹정리 4-19 혁명 정신이 깃든 김주열 열사 기념관에서 하도리에 이르는 11km 구간에 배롱나무 1천 500그루가 식재되어 있어 그 의미가 깊으며 면민들이 갖는 애정은 남다르다.

'백일동안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한다' 하여 목백일홍으로도 불리는 배롱나무의 꽃은 한여름 찜통더위 속에서도 태양보다 더 붉은 화사함을 연출하여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한다.

올해 유난히도 지속된 가뭄에 목백일홍이 만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걱정했으나 이런 우려를 무색하게 하나 둘 피어나기 시작한 목백일홍이 어느새 국도 17호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남원시,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특정감사

### 사업 투명성·적정성 재점검

남원시가 12일부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쪼와이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정감사는 민간개발사업 사업성 검토 및 사업관련 시민 여론 등 의혹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TF팀 및 토목, 전기, 기계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 사업 추진 행정절차, 협약서 적법성, 사업비 투자 적정성 등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원테마파크(주)는 지난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83억원을 들여 남원관광지 및 합파우유원지 일원에 모노레일(2.44km), 쪼와이어(1.26km)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에 대한 투명성,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사업 운영에 앞서 이번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함으로써 남원관광지 등을 재확인하겠다"면서 "향후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전북교육청, 지역주민에 학교체육시설 전면 개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일반인에게 사용을 제한했던 일선 학교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지역감염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 실내체육시설까지도 전면 개방하도록 지침을 변경, 안내한 것이다.

또 학교 체육시설 전면 개방은 서거석 교육감의 후보 시절 체육 공약이기도 했다.

서 교육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도 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개인위생과 일상방역 등 이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양원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장학관은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해 개방을 결정했다"며 "변화하는 방역 체계에 맞춰 학교와 도민이 상생·동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 고창군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본격화

### 기본계획 수립 현장 자문회의

### 2024년까지 82억원 투입

### 갯벌·죽옥체험장·식물원 조성

고창에 갯벌죽옥체험장, 탄소중립 식물원·야영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고창군은 갯벌죽옥체험장과 탄소중립식물원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흥덕문화복지관에서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자문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자문위원 5인, 지역협의체 자문위원 3인, 고창군 관계자, 사업수탁 기관인 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산·어촌, 역사·문화·관광, 건축·경관·디

자인 등 기본계획 수립전 지역여건을 분석했다. 또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포권역의 차별화된 콘셉트를 도입해 보다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구상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오는 10월중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 11월 실시계획운영, 내년 5월 사업에 착수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신개념 상포권역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에는 2024년까지 사업비 약 82억원이 투입된다. 부안면 상포·반월, 흥덕면 후동·후서·사포마을의 노후포구정비 등 여업환경을 개선하고 2050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제로 갯벌(후포) 죽옥체험장, 탄소중립 식물원, 탄소중립 야영장, 친환경 주차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진행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증대,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사업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